

## 상록탑

## 안보 불감증,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

“속보입니다,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이 추정되는 진도 5.7의 인공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경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속보의 내용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이불을 걷어내고 똑바로 앉으니 막이 갠 듯 텔레비전의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렸다. 끊임없이 북한에서 감지된 지진이 핵실험 때문일 것이라 떠들고 일본, 중국, 미국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번갈아가며 보여줬다.

그러나 충격을 받았던 포인트는 북한의 핵실험 강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나 한국의 대북 입지가 흔들렸다는 점이 아니었다. 얼른 속보가 끝나고 원래 보던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안보 불감증’ 때문이었다.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왔었지만 솔직히 와 닿지 않으니 공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접적인 영향 앞에서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커다란 문제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커다란 사안을 두고 혼자만 안일



권소정  
사회부 부장

“가장 민감해야 할 우리들, 위태로운 안보상황 인지해야해

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속으로 자책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멈추게 만들었다. ‘얼른 드러마나 다시 보여주지’. 분명 이렇게 들렸다. 당시 옆자리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 중이던 엄마가 있었다. 엄마가 한 말이 혼잣말인걸 알았지만 괜히 똑같이 생각했다는 사실을 들리기 싫은 마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한마디를 던졌다.

한국의 안보 불감증은 하루 이틀 나타났던 증세가 아니다. 북한의 핵 실험이 확인

된 것만 여섯 차례인데도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언제 북한이 핵을 우리나라에 떨어트릴지 몰라 불안해하지 않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할 뿐이다. 속보가 난 당일에도 사람들은 평화롭게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마트에 가서 그날 저녁 먹을 음식들을 구매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 또한 북한의 핵실험 속보가 끝나자마자 빠르게 관심을 끄고 일상적인 일들에 신경을 쏟았다. 개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시간표를 조정하고, 수업을 위해 책도 사고, 학보 발행을 시작했으니 기획안 작성도 해야 했다.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할 것뿐이었다. 북핵 문제는 앞에서 시끄럽게 이야기를 해야 ‘맞아, 맞의를 기울여야지.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라고 잠깐 머릿속에 머물렀고 곧 사라졌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위태롭게 보고 있다. 특히 예상할 수 없는 북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면밀히 주시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작 가장 민감해야 할 당사자인 우리들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안보 불감증이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는,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 학생 칼럼

## 나는 나를 몰랐다

이번 가을을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다시 돌아온 나는 대학생이다.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 아직 좋지만 하다. 아름다운 학교 캠퍼스에서 반가운 친구들과 수업을 듣는 것은 꽤 낭만적인 일로 느껴진다. 졸업한다면, 이러한 사소한 일상들이 그림자처럼, 하지만 휴학 전 학교생활은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암흑기였다.

힘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는 나를 몰랐다. 고등학생 때는 크면 나에게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줄 알았다. 대학교 가서 원하는 공부들 깊이 있게 배우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은 눈치 없이 빠르게 흘러다 컸다고 하는 나이인데도 나는 여전히 내가 어려웠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답할 수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대학교 공부, 친구 만나기, 대외활동 등도 좋지만 나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휴학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또래 친구들과 다 뒤쳐지는 것은 아닌지 무서웠고,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했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나를 짓눌렀다. 휴학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김연연  
경제 15

“우리는 ‘무엇’을 ‘왜’ 하는가 기본적인지만 어려운 질문 주제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

감정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거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외국에서는 ‘gap year’라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쉬는 휴식기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던데 왜 나를 포함한 주변 친구들 중 꿈꾸는 자가 적을까. 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모를까. 왜 우리는 한 학기 휴학에도 이리 불안감을 느낄까.

생각해보니 우리는 항상 경쟁 속에서 바쁘게 살아왔고, 삶의 여유를 갖는 것은 일종의 사치라고 느꼈던 것 같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휴식, 노는 것’은 나중에 여유로울 때 해도 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 중에서 정말 대학교만 다니는 학생들은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건, 대외활동을 하건, 외국어 공부를 하건 항상 무엇을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훌륭하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에게 대한 고민이 부족한 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주변 친구들만 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해 곰곰이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어떤가? ‘나는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가, 나는 이 활동을 왜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직업을 왜 꿈꾸는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가?’와 같은 기본적인지만 답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 했던 활동들이 방향을 잃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바쁜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마음의 휴식을 가지며 ‘나’를 천천히 알아간다면, 더욱 주제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룬 것은 없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인식만 자리잡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즉흥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주인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부러움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올해 대학에 입학해 벌써 한학기를 보내고 지적으로 성숙해졌다면, 방학 동안에는 다양한 경험과 여러 나라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감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자신의 진짜 ‘꿈’을 꾸는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고, 세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얼마전 우연히, 엄마가 다운받아 놓으신 우디앨런의 ‘미드 나잇 인 파리’를 다시 보게 됐다.

“파리는 빛 속이 제일 예쁘죠.”  
가브리엘의 대사가 어찌나 예쁘던지,  
임혜린(디자인 17)

## 사설

## 더 나은 이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

6월부터 7월까지 중앙행정부처의 처장단이 모두 새로 임명됐다. 본지는 처장단의 취임에 맞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화를 개혁할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장학금 확충부터 교내 안전까지 그 내용도 다양하고 새로웠다.

새로운 사업들을 실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작년 본고는 큰 환영을 겪었다. 그 일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학내 구성원의 동의 없는 사업진행이었다. 프라임 사업부터 미래라이프 단과대학까지, 구성원의 동의 없는 사업추진이 얼마나 큰 사태를 불러일으키는지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했다. 아무리 괜찮은 사업이고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발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 무작정 밀어붙인다면 작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또한, 학내 구성원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처장단의 인터뷰 답변을 보면 다행히도 현재까지 각 부처는 학내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학생들이 어떤 것에 불만을 갖고 있고 교직원들이 원하는 변화는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각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서로 조율하기란 쉽지 않으

리라 예상된다. 부처 간 충돌하는 지점도 생길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 이번 총장과 처장단의 성공, 그리고 이화의 미래가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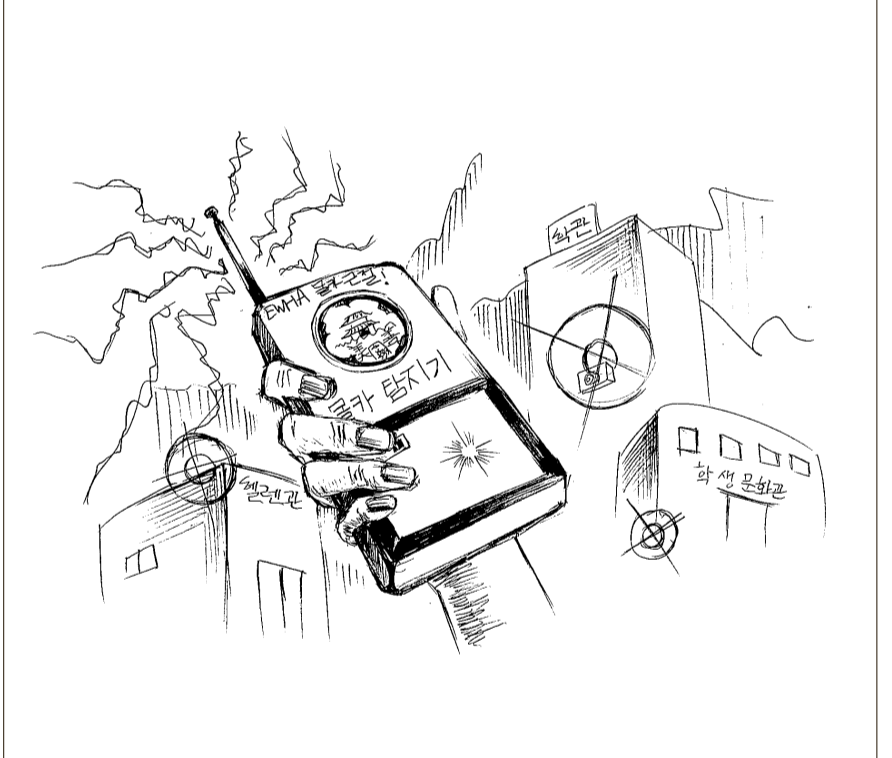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만큼 학생들 또한 믿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가 제시하는 모든 정책이 학생들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한 정책이 모든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무조건적으로 학교를 비판하기보다는 학교 당국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9월 셋째 주에 열리기로 한 총장과의 대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지 학생들도 학교 당국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과 총장 그리고 보직 교수들이 깊이 있고 다양한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 학교 당국은 이 자리에서 던지는 학생들의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 학생들도 학교 측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화의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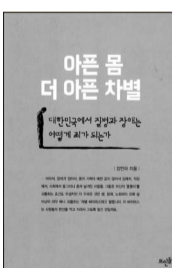
현재 이화는 격동기에 서있다. 작년의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화로 향하는 그 길에 학내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 2017년의 이화는 작년과는 다르길 바란다.

## 만평

최미곤 만평가 ordinarymg@hanmail.net



## 금주의 책



**아픈 몸, 더 아픈 차별** - 김인아 지음. 서울: 뜨인돌출판, 2016. 사람이란 누구도 늙음과 질병, 죽음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우리들은 대부분 아픈 나, 장애가 있는 나, 노쇠한 나의 모습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질병과 장애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인 저자는 책에서 장애나 병을 앓았던 이력 때문에 기숙사 입소 거부, 사생활 보호 거부, 회사 입사 거부 등 신체적 아픔보다 더 아픈 사회적 차별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를 꼬집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화인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양한 모습의 삶이 공존하는 사회를 꿈꾸기를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중앙도서관 -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을 인기도서/3층 일반자료실 362.1042 김49아]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헤리포트와 불사조 기사단	Rowling, J. K.	문학수첩	2003
2	신과 함께: 저승편	주호민	애니박스	2011
3	헤리포트와 불의 잔	Rowling, J. K.	문학수첩	2000
4	1Q84: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村上春樹	문학동네	2009-2010
5	동북지역 조선인 항일력사 사료집	김우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3-2004
6	정글만리: 조정래 장편소설	조정래	해냄출판사	2013
7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아포리아: 아름다운사람들	2013
8	신과 함께: 신화편	주호민	애니박스	2012
9	서울대 한국어 [개정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문진미디어: 투란즈	2012-
10	헤리포트와 혼혈왕자	Rowling, J. K.	문학수첩	2005

## 여론광장

## 몽상가와 사회인 사이, 낭만의 의미

선호하는 영화 취향이 뚜렷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우디앨런(Woody Allen)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미팅한 스토리와 빠른 전개, ‘매직 인 더 문라이트 (Magic in the Moonlight)’를 제외한 그의 영화 대부분은 깊은 이야기는 없고 2~30년대 제즈에만 초점을 맞추어 놓은 것이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한 것은 그의 영화에 등장하는 낭만적인 ‘몽상가’와 속세에 찌든 ‘사회인’ 사이의 대립이다.

그는 대개 낭만에 취한 감정적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곤 하는데, 나에게 몽상가들이란 결국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다. 나는 그들이 이상만을 좇고 세상과 양립하지 못하는 것을 ‘낭만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치부

시킨다고 생각해왔고, 단순히 시간 낭비인 일을 ‘예술’이라는 단어로 가장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화는 ‘각박함’ 혹은 ‘낭만적이지 않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준다. 사실, 대학생이라면 고등학생과 달리 진짜 자신의 꿈을 좇아 떠나고 이성이나 감정에 의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의 청춘을 마음껏 누리고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학생들에게는 진짜 여유가 없다. 교양 서적에 등장하는 터너 (J. M. W. Turner)의 그림은 그저 [영국의 ‘추상표현주의’의 걸작] 중 하나인 것이다. 그 누구도 그 그림을 보고 떨미를 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낭만이란 사치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허세’일 뿐이다.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